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융합적 영향요인

이소영¹, 이경희^{2*}

¹경운대학교 간호학과, ²계명대학교 간호대학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So-Young Lee¹, Kyung-hee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및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및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간호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하였고, SPSS/WIN 21.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중간이상(3.68점/5점 만점)의 수준이었고,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beta=-.11$), 교수관계($\beta=.16$), 평가적 지지($\beta=.40$), 자기정서조절($\beta=.39$)이었다.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68%였으며, 정서조절능력 중 자기정서조절이 긍정심리자본을 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증진을 위해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긍정심리자본, 융합,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o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157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 Win 21.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above middle level(3.68/5),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gender ($\beta = -.11$), teaching relationship ($\beta = .16$), evaluation support ($\beta = .40$) and self emotion regulation ($\beta = .39$).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68%, and by emotional self control of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explanatory power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9%. In order to enhanc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an effective strategy to develop and provide an emotional regulation program.

Key Words : Nursing Stu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nvergence, Soci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전체적, 통합적 관점으로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학문이며,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1]. 페플라우는 간호사-대상자 관계에서 자기를 치료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대상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간호사의 가치에 의해서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Lee(khl645@gw.kmu.ac.kr)

Received March 5,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May 4, 2018

Published May 28, 2018

대상자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 미래의 건강 관리자로서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대처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도한 학습량,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임상실습 현장에서 실제 환자 대상의 실습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해 실망, 좌절을 경험 할 때 삶의 의미 상실과 심지어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게 된다[4].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및 부정적 정서에 관심을 두고, 이를 교정하는데 심리학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5]. 하지만 최근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 문제와 부정적인 정서의 교정보다,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긍정심리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직장과 같은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6].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심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의 네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7].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복합적인 심리상태이며,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향상 될 수 있는 상태적인 속성이 있어[8], 개인의 잠재적인 정신건강문제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간호학 분야의 긍정심리자본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201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9]. 간호대학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0],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주로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나 매개변수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훈련과 학습을 통해 향상이 될 수 있는 상태적인 속성을 가진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각 대학들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진로준비 행동, 실습 만족도 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정서, 긍정심리자본에 관

심을 가지고 관련 변수들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정도 및 영향요인의 확인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요인은 완화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간호사로 취업 후 직업 적응과 간호하는 대상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는 개인적 배경(성별, 종교, 결혼유무, 경제적 수준), 멘토링, 부모·또래·형제자매의 교육적 지지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12].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Li 등[13]의 연구와 국내의 경우 이계순[14]은 청소년 대상으로 개인요인(성별, 성적, 정신건강), 가족요인(부모의 지원), 학교요인(교수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 요인(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호텔조직 구성원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15].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인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받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지원, 정보 또는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16]. 정서조절 능력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17], 의식적인 통제과정을 통해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상태, 감정,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조절함으로 가치 있는 목표로 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정서적 요인이며[18], 자신의 정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의 적응력의 향상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 문제해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19]. 따라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세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적,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능력과 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육성하는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성 및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요구된다고 하

겠다.

향후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효과적으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방안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적 변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 정서적 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을 변수로 선정하고,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융복합적으로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능력 및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을 알아본다.
-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능력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D광역시 K대학 간호대학생 중 각 학년별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6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10개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α) .05, 효과 크기 (f^2) .15 (medium), 검정력 ($1-\beta$) 9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47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해당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2

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60부 모두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57부(98.1%)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수집되는 자료는 설문지이며 질문내용은 총 90문항이며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6문항,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 24문항, 사회적지지 관련 25문항, 정서조절능력관련 15문항이다.

2.3.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2013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이계순[14]이 사용한 설문지로 본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요인은 성별, 학년, 성적, 종교 4문항이며, 가족요인은 가족형태,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의 질을 포함하여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지원의 경우 부모의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며,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 친밀도를 뜻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지원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 가족관계 질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학교요인은 교수관계와 친구관계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수관계의 경우 교수와의 긍정적인 태도, 친밀한 교류의 정도를 나타내며, 친구관계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교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뜻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관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 친구관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측정을 위하여 Luthans [7] 등에 의해 개발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김주섭[20]이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이 각 6문항씩 24개 문항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13, 20, 2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전체 긍정심리자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효능감 .86, 희망 .84, 회복력 .74, 낙관성 .67이었다[20]. 본 연구에서 전체 긍정심리자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효능감 .79, 희망 .81, 회복력 .72, 낙관성 .77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1]이 개발한 척도를 유은경과 설현수[22]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과 이해 및 격려, 신뢰, 관심 등의 7문항, '평가적 지지'는 칭찬, 인정 등의 6문항,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나타내는 6문항, '물질적 지지'는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을 의미하며 6문항으로 총 4개 영역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 부터 느끼는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2]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정서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89, 물질적 지지 .84, 평가적 지지 .87이었다.

2.3.4 정서조절능력

정서지능을 개념화 한 Salovey와 Mayer[23]의 정서지능 초기모형에 근거하여 문용린[2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인 AEQT(Adult Emotional Quotient Test)에서 정서조절능력을 묻는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자기정서조절(8문항)과 타인정서조절(7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민영[25]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조절능력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조

절은 .87, 타인정서조절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조절은 .85, 타인정서조절은 .74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능력,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 능력,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고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시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 수거함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넣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 136명(86.6%), 남학생 21명(13.4%)이었고, 1, 3, 4학년 각 39명(24.8%), 2학년 40명(25.6%)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위권(4.0이상) 5명(3.2%), 중위권(3.9-3.0) 145명(92.3%), 하위권(2.9이하) 7명(4.5%)이었다. 종교는 없다는 응답자가 106명(67.5%)이었으며, 가족형태의 경우 양부모가정 139명(88.5%), 한부모가정 15명(9.6%), 기타 3명(1.9%) 순이었다. 경제수

준은 상위권 23명(14.7%), 중위권 115명(73.2%), 하위권 19명(12.1%)이었다. 가족요인 중 부모지원 정도의 평균은 3.35 ± 0.52 이었고 평균을 기준으로 부모지원 정도가 낮은 그룹 80명(51.0%), 부모지원 정도가 높은 그룹 77명(49.0%)이었으며, 가족관계 질의 평균은 3.43 ± 0.54 이었고 평균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질이 낮은 그룹 81명(51.6%), 가족관계 질이 높은 그룹 76명(48.4%)이었다. 학교요인 중 교수와의 관계 평균은 2.79 ± 0.61 로 교수와의 관계가 낮은 그룹은 74명(47.1%), 교수와의 관계가 높은 그룹은 83명(52.9%)이었고, 교우관계의 평균은 3.36 ± 0.54 교우관계가 낮은 그룹은 91명(58.0%), 교우관계가 높은 그룹은 66명(42.0%)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및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정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8점 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자기효능감 3.86점, 희망 3.71점, 회복력 3.62점, 낙관성 3.51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97점, 하위요인별 정서적 지지 4.06점, 정보적 지지 3.41점, 물질적 지지 3.30점, 평가

적 지지 3.41점이었다. 정서조절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83점 하위요인별로 자기정서조절 3.82점, 타인정서조절 3.85점이었다. Table 2

3.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성별($t=2.66, p=.013$), 학년($F=6.30, p<.001$), 학업성적($F=3.14, p<.001$), 경제수준($F=4.40, p=.014$), 부모지원($t=-8.52, p<.001$), 가족관계 질($t=-6.37, p<.001$), 교수와의 관계($t=-5.11, p<.001$), 교우관계($t=-6.7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학년의 경우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이 하위권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고,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요인 중 부모지원이 높은 그룹, 가족관계 질이 높은 그룹과 학교요인 중 교수와의 관계가 높은 그룹, 교우관계가 높은 그룹이 각각의 낮은 그룹보다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n±SD	t or F(p)
Gender	Male		21(13.4)	3.94±0.48	2.66 (.013)
	Female		136(86.6)	3.64±0.46	
Grade	1 ^a		39(24.8)	3.50±0.42	6.30 (<.001) d>a,b,c [*]
	2 ^b		40(25.6)	3.64±0.44	
	3 ^c		39(24.8)	3.63±0.44	
	4 ^d		39(24.8)	3.93±0.49	
Academic achievement	High(grade≥4.0) ^a		5(3.2)	4.12±0.77	3.14 (.046) a>c [*]
	Medium(grade 3.9-3.0) ^b		145(92.3)	3.67±0.46	
	Low(grade ≤2.9) ^c		7(4.5)	3.45±0.31	
Religion	Yes		51(32.5)	3.68±0.53	.16 (.875)
	No		106(67.5)	3.67±0.44	
Family factors	Family type	two-parent	139(88.5)	3.68±0.48	0.37 (.689)
		single-parent	15(9.6)	3.63±0.41	
		etc.	3(1.9)	3.89±0.53	
	Economic level	Good ^d	23(14.7)	3.93±0.47	4.40 (.014) a>b,c [*]
		Usually ^b	115(73.2)	3.64±0.45	
		Poor ^c	19(12.1)	3.57±0.54	
	Parental Support	low group	80(51.0)	3.42±0.37	-8.52 (<.001)
high group		77(49.0)	3.95±0.41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low group	81(51.6)	3.47±0.41	-6.37 (<.001)	
	high group	76(48.4)	3.90±0.43		
School factors	Relationship with professor	low group	74(47.1)	3.49±0.40	-5.11 (<.001)
		high group	83(52.9)	3.84±0.46	
	Relationship with friends	low group	91(58.0)	3.49±0.36	-6.70 (<.001)
		high group	66(42.0)	3.94±0.48	

^{*}Scheffe's tes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57)

Variables	Min	Max	Mean±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54	5.0	3.68±0.47
Self-efficacy	2.5	5.0	3.86±0.50
Hope	2.3	5.0	3.71±0.54
Resilience	2.3	5.0	3.62±0.55
Optimism	2.0	5.0	3.51±0.61
Social support	2.76	5.0	3.97±0.53
Emotional support	2.6	5.0	4.06±0.57
Informational support	2.3	5.0	3.41±0.56
Material support	2.5	5.0	3.30±0.58
Evaluative support	2.7	5.0	3.41±0.55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2.70	5.0	3.83±0.47
Emotional self-regulation	2.3	5.0	3.82±0.57
Other emotion regulation	2.9	5.0	3.85±0.49

3.4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r=.64, p<.001$)와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r=.62, p<.001$), 정보적 지지($r=.56, p<.001$), 물질적 지지($r=.55, p<.001$), 평가적 지지($r=.7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정서조절능력($r=.63, p<.001$)과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조절($r=.68, p<.001$), 타인정서조절($r=.4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3.5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가 아닌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성별은 ‘남자’, 학년은 ‘1학년’, 학업성적은 ‘상위권’, 경제수준은 ‘상위권’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62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으며, 공차한계는 0.370-0.81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294-1.95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beta=-.14$), 부모지원($\beta=.29$), 교수관계($\beta=.18$), 교우관계($\beta=.23$)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12.27, p<.00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설명력은 46%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beta=-.18$), 부모지원($\beta=.20$), 교수관계($\beta=.15$), 평가적 지지($\beta=.56$)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15.04, p<.00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설명력은 59%이고, 사회적 지지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설명력은 13%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3단계에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5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2. Self-efficacy	.81*	1											
3. Hope	.88*	.72*	1										
4. Resilience	.88*	.58*	.69*	1									
5. Optimism	.86*	.52*	.63*	.74*	1								
6. Social support	.64*	.56*	.56*	.55*	.53*	1							
7. Emotional support	.62*	.54*	.53*	.54*	.51*	.96*	1						
8. Informational support	.56*	.48*	.50*	.49*	.46*	.95*	.88*	1					
9. Material support	.55*	.47*	.51*	.48*	.43*	.93*	.83*	.85*	1				
10. Evaluative support	.70*	.62*	.60*	.58*	.59*	.95*	.90*	.85*	.83*	1			
11.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63*	.45*	.45*	.60*	.65*	.52*	.49*	.47*	.45*	.55*	1		
12. Emotional self-regulation	.68*	.43*	.49*	.66*	.71*	.48*	.46*	.43*	.42*	.51*	.91*	1	
13. Other emotion regulation	.44*	.36*	.31*	.39*	.42*	.44*	.41*	.41*	.38*	.46*	.87*	.59*	1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 Self-efficacy, 3. Hope, 4. Resilience, 5. Optimism, 6. Emotional support, 7. Informational support, 8. Material support, 9. Evaluative support, 10. Social support, 11. Emotional self-regulation, 12. Other emotion regulation, 13.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 <.001

Table 4. Predi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5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051	.244	-	12.527	.000	1.861	.287	-	6.480	.000	1.476	.292	-	5.056	.000
Gender [*]		-.194	.085	-.141	-2.274	.024	-.258	.076	-.187	-3.401	.001	-.163	.069	-.119	-2.368	.019
Grade d1 [†]		.013	.082	.012	.164	.870	.044	.073	.041	.601	.549	-.032	.066	-.030	-.490	.625
Grade d2 [†]		-.043	.082	-.040	-.528	.598	-.009	.073	-.008	-.123	.902	-.058	.065	-.054	-.894	.373
Grade d3 [†]		.162	.084	.150	1.929	.056	.100	.074	.092	1.344	.181	.013	.067	.012	.187	.852
Academic achievement d1 [‡]		-.208	.162	-.118	-1.288	.200	-.094	.143	-.054	-.662	.509	-.159	.127	-.090	-1.254	.212
Academic achievement d2 [‡]		-.201	.211	-.089	-.954	.342	-.049	.186	-.022	-.263	.793	-.057	.166	-.025	-.346	.730
Family factors	Economic level d1 [§]	-.164	.084	-.155	-1.942	.054	-.092	.075	-.087	-1.223	.223	-.112	.067	-.106	-1.674	.096
	Economic level d2 [§]	-.190	.115	-.132	-1.650	.101	-.145	.102	-.101	-1.420	.158	-.124	.090	-.086	-1.372	.172
	Parental Support	.278	.089	.296	3.124	.002	.190	.079	.203	2.409	.017	.135	.071	.144	1.896	.060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069	.083	.074	.832	.407	-.021	.074	-.023	-.287	.774	.004	.066	.004	.064	.949
School factors	Relationship with professor	.176	.060	.188	2.942	.004	.148	.053	.158	2.775	.006	.156	.047	.166	3.279	.001
	Relationship with friends	.224	.064	.236	3.508	.001	.078	.060	.082	1.301	.196	.064	.054	.067	1.192	.235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052	.119	.063	.438	.662	.079	.105	.095	.751	.454
	Informational support						-.114	.105	-.136	-1.091	.277	-.110	.093	-.130	-1.180	.240
	Material support						-.025	.088	-.031	-.288	.774	-.034	.078	-.041	-.429	.668
	Evaluative support						.485	.116	.565	4.165	.000	.351	.106	.409	3.314	.001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Emotional self-regulation											.328	.053	.398	6.193	.000
	Other emotion regulation											-.085	.057	-.088	-1.488	.139
F(p)		12.27(<.001)					15.04(<.001)					19.23(<.001)				
R ²		.51					.63					.72				
Adjusted R ² (ΔR^2)		.46					.59(.13)					.68(.09)				

* Dummy variables(Male=0, Female=1), † Dummy variables(Grade 1=0, Grade 2=d1, Grade 3=d2, Grade 4=d3), ‡ Dummy variables(Academic achievement High=0, Academic achievement Medium=d1, Academic achievement Low=d3), § Dummy variables(Economic level Good=0, Economic level Usually=d1, Economic level Poor=d2)

서는 정서조절능력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beta=-.11$), 교수관계($\beta=.16$), 평가적 지지($\beta=.40$), 자기정서조절($\beta=.39$)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19.23, p<.00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설명력은 68%이고, 정서조절능력 중 자기정서조절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설명력은 9%였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평균 3.97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나 제문희[26]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점수 평균 4.11점(5점 만점)보다는 낮았고,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박영희[27]의

연구에서 3.66점 보다는 높았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의 '정서적 지지'가 4.0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적 지지' 3.41점, '평가적 지지' 3.41점, '물질적 지지' 3.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문희[26]의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정서적 지지'가 4.27점으로 가장 높고, '평가적 지지' 4.12점, '정보적 지지' 4.04점, '물질적 지지' 3.91점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박지원[21]은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여 얻게 되는 것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미뤄볼 때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정도의 차이는 간호학과 특성 상 실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경험한 결과로 사료된다.

정서조절능력은 평균 3.83점(5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80점으로 나온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2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중숙[29]의 연구에서 3.29점, 박현태[30]연구에서 3.52점, 정민영[25]의 연구에서 3.6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계

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수준을 비교하고,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3.68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74점이었고, 동일한 도구의 선행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은 3.53점(5점 만점, 71점)[10]과 우정희[31]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점수는 4.28점(6점 만점, 71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점수는 3.55점(5점 만점, 71점)[32], 김주섭과 박재춘[33]연구에서는 4.19점(6점 만점, 70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자기효능감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희망 3.71점, 회복력 3.62점, 낙관성 3.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 3.63점으로 가장 높고 희망 3.50점, 회복력 3.35점 순서로 자기효능감 3.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34].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한 상태적 특성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특성[8]으로 인해 동일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반복 연구를 수행되어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다르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심리자본 및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35].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을 비교 한 선행연구가 없어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향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별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확인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와 유사한 결과로 임상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직위, 경력,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으로[36] 나타난 결과처럼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1,2,3학년 보다 임상실습과 이론 교육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4학년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 보다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 중 대상자는 다르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35]. 이는 성적 향상을 통한 성취경험이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긍정심리자본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수준이 높은 군, 부모지원이 많은 군, 가족관계 질이 높은 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순[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 및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 및 가족원들이 긍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나 지역사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되어 적절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수와의 관계 및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나 교우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이 같다[14]. 이는 가족구성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수나 교우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인정과 지지 또한 가족의 긍정적 지원과 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하며, 호텔조직 구성원 대상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5].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beta=-.11$), 교수관계($\beta=.16$), 평가적 지지($\beta=.40$), 자기정서조절($\beta=.39$)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68%였으며,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조절이 긍정심리자본을 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의식적인 통제 과정으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 및 지속시키기 위하여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조절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에 대한 인상을 조절하는 능력인 반면 자기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는 자기정서조절능력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간호대학생 일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다양한 대상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및 정서의 조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간호사에게 필수 전제 조건이다[37]. 이는 여인주[15]의 호텔종사원 대상 연구에서 호텔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해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며, 호텔종사원 스스로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것은 나아가 직무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백소현[38]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다양한 상황이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이처럼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잘 유지 및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행동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간호대학생이 긍정심리자본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감정 및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정서조절능력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중재 시 정서조절능력은 우선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으며, 평소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정서조절 활동을 다양하게 생활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고,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및 정서조절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및 정서조절능력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증진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중간이상의 수준이었고,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정도, 가족관계의 질, 교수 및 교우관계의 정도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에 차이가 있었다.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능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요인은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조절로 규명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반영 및 실제적인 운영방안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증진하는데 있어 긍정적 정서요인인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과 특성 상 높은 스트레스와 잠재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간호대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긍정적 자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긍정심리자본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융복합적 함의를 제공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취업 후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긍정심리자본 증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의 대학,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 및 논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지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정확한 심리 상태나 심리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전공계열별 긍정심리자본의 차이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인 결과비교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의 직접적인 비교를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

- [1] J. Travelbee. (1966). *Interpersonal aspects of nursing*. Philadelphia : Davis.
- [2] H. Peplau. (1952). :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New York : GP Putnam's Sons.
- [3] J. H. Park. (2011).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in*, 17(1), 74-87.
- [4] S. B. Cho & S. H. Kim. (2012). Development of a iritu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877-890.
- [5] N. H. Cha & S. R. Sok. (2014). Depression, self-esteem and anger expression patterns of korean nursing students. *Int Nurs Rev*, 61(1), 109-115.
- [6] Seligman ME & Csikszentmihalyi M .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 Psychol*, 55(1), 5-14.
- [7] F. Luthans, B. J. Avolio, J. B. Avey & S. M. Norman.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8] F. Luthans & C. M. Youssef. (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 [9] M. Y. Lee & K. H. Kim. (2012). Influence of head nurs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staff nurse's psychological well-being, stress and somatization-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 Korean Acad Nurs Admin*, 18(2), 166-175.
- [10] Y. M. Kim (2016).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112>
- [11] J. Y. Park & C. H. Woo. (2017). Convergence effect factors on career-preparation behaviou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85-92. <https://doi.org/10.15207/JKCS.2017.8.7.085>
- [12] A. Khan. (2013). Predi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north indian adolescents: Role of mentoring and educational encourag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3), 285-1293. <https://doi.org/10.1007/s11205-012-0202-x>
- [13] B. Li, H. Ma, Y. Guo, F. Xu, F. Yu & Z. Zhou. (201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new approach to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J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1), 135-144. <https://doi.org/10.2224/sbp.2014.42.1.135>
- [14] G. S. Lee. (2015). *A Stud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adolescent department for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15] I. J. Yeo. (201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ustomer orienta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 [16] J. S. House.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17] J. E. Song,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4), 502-512.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18] J. H. Choi. (2009).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Y. K. Kwag. (2014). Comparison of stress, copying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pression sever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125-134. <http://dx.doi.org/10.14257/AJMAHS.2014.12.31>
- [20] J. S. Kim.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job search self-efficacy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Andragogy Today :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8(2), 43-67.
- [21]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2] E. K. Yu, H. S. Seol. (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vey research*, 16(1), 155-184.
- [23] J. D. Mayer, P. Salovey.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4), 433-442.
- [24] Y. L. Moon. (1996).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 case in Korea*. *SNU J Educ Res*, 6(11), 11-30.
- [25] M. Y. Jung. (2013).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expression abilities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26] M. H. Je. (2012). *Social support, self-esteem of major effect on empowerment of students in nursing*.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27] Y. H. Park. (2017).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3(1), 111-116.
<https://doi.org/10.4094/chnr.2017.23.1.111>
- [28] I. S. Jang.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3), 749-761.
- [29] J. S. Han. (2015).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459-4466.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 [30] H. T. Park.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76-1583.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31] C. H. Woo. (2016).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KoCon spring comprehensive academy conference*, 2016(5), 287-288.
- [32] Y. S. Jo. (2016). Development of program to improve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university student' and its effec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29-54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29>
- [33] J. S. Kim & J. C. Park. (2013). The multi-level analysis 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earch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20(3), 52-74.
- [34] Y. M. Kim. (2017).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309-323.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17>
- [35] A. R. Choi & S. Lee. (2016). The effects of temperament,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Child Stud*, 37(2), 57-77.
<http://dx.doi.org/10.5723/kjcs.2016.37.2.57>
- [36] J. O. Ko, S. K. Park & M. H. Lee. (2013). Factors affecting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 Korean Acad Nurs Adm*, 19(2), 304-314.
<http://doi.org/10.11111/jkana.2013.19.2.304>
- [37] M. K. Jeon & M. S.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40-48.
- [38] S. H. Baek. (2013). The effects of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ception of college environmental climat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ungnam.

이 소 영 (So-Young Lee) [정회원]



- 2015년 2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과정 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간호, 긍정심리
- E-Mail : ysy03967@hanmail.net

이 경 희 (Kyunghee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1983년 3월 ~ 1993년 2월 : 공주전문대학 부교수
- 1993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비만, 자율신경계
- E-Mail : kh1645@gw.kmu.ac.kr